

2018. 3. 30

한미약품 128940

올리타 중국 권리 반환, 주가에는 이미 반영

●
제약/바이오

Analyst **이태영**
02. 6098-6658
taeyoung.lee@meritz.co.kr

자이랩, Olmutinib(올리타)의 권리 반환

한미약품은 자이랩(Zai Lab)으로부터 올리타의 중국 권리를 반환 받았다고 공시. 올리타의 중국 판권은 지난 '15년 11월 자이랩(Zai Lab)에 계약금 7백만달러, 총 계약규모 9천2백만달러에 이전 됐었음. 한미약품이 기 수령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음

올리타의 전 세계 판권 다시 한미약품 품으로

지난 '16년 베링거인겔하임이 권리를 반환한데 이어 자이랩도 권리를 되돌려주게 됨에 따라 올리타의 전 세계 판권은 다시 한미약품에 귀속. 한미약품은 글로벌 임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자 준비 중이었음. 따라서 향후 글로벌 개발 계획에 중국 지역을 포함시키는 방향 검토 중

계약 당시 대비 낮아진 상업성 때문이라 판단

한미약품과 자이랩이 계약했을 당시의 폐암 치료 시장과 현 시점의 폐암 치료 시장은 경쟁약물의 데이터 축적, 신규 치료제 등장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었음. 그에 따라 낮아진 상업성 대비 임상 비용 및 마일스톤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

주가에는 이미 선 반영

올리타의 반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상업성으로 베링거인겔하임의 반환 당시 이미 주가에는 선 반영되었음. 향후 한미약품의 자체 개발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가치 변동 있을 수는 있겠으나, 기존 치료법 대비 동등성 혹은 우월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신규 전략 필요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3월 3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3월 3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3월 3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이태영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